

지난주일(7월31일) 설교 발췌

제목: 하나님의 긍휼과 거룩하심 (호 11:1~11)

요즘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삶의 중심을 점점 더 소소한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누구나 보고 놀랄 만한 큰 일이 아니라 스쳐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에서 삶의 신비를, 즉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을 경험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거의 공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을 가장 즐겁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문 여닫기가 그중의 하나입니다. 방문을 여닫는 일은 신비롭습니다. 손으로 손잡이를 잡을 때 특별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문을 잡아당기거나 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동양 가르침으로 말하면 문 여닫기도 도(道)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손이 없다면 발로, 눈이 없다면 순전히 촉감으로만 그 일을 해야겠지요. 제가 여전히 손을 쓰고, 발로 걷고, 눈으로 보며, 방향 감각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가 장애인인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뜻이 아니니, 오해는 마십시오. 이렇게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생명 충만감 외에 우리가 더 욕심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닌가요?

설교 앞 대목에서 호세아가 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풍요의 신이라 할 수 있는 바알 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알 숭배 역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외면함으로써 자기 성취와 자랑거리에 매몰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긍휼을 모르니까 자기 성취에 매달리고, 자기 성취에 매달리면 긍휼에서 멀어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방인들의 염려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천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관한, 즉 그가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는지에 관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이기적이고 위선적이며, 자기연민과 이전투구로 돌아가는 세상 이치에 길들어서 '믿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겁니다. 거칠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는 셈 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실제로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거룩하심을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8월7일

성령강림 후 아홉째 주일
세계 교회력 「다」해 37주

✦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눅 12:40)



베를린에 있는 ‘카이저 빌헬름 기념교회’다. 왼쪽과 오른쪽 건물은 신축한 현대식 교회당이고, 중앙 건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교회당이다. 그날의 참상을 남기려고 건물을 수리하지도 않았고, 허물지도 않았다. (정 목사가 안식일 여행을 갔던 9월30일에 찍은 사진이다.)

예배 장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 찬식 및 친교: 5:00~5:20 / 교우모임: 5:20~6:20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채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e/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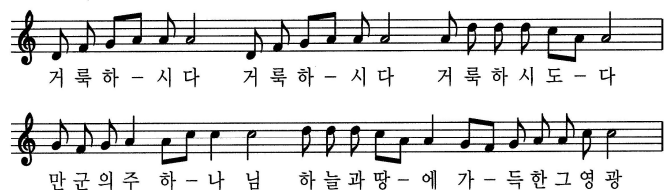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시 98:4, 5) 오늘 우리는 지극정성의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찬송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1, 2, 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우리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영과 진리 가운데서
대면과 비대면의 방식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배에서 소외되지 않고
영혼이 살아서 숨 쉬는 이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결속에서만 가능한 삶의 깊이와 신비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완성자이시기에
세상에서 많은 걸 알지 못하거나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사실을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온 영혼으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고전 15:19)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Sanctus)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1. 리마 예식서- 오늘 예배 순서에 나온 ‘거룩 찬송’과 ‘영광 찬송’은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고른 찬송입니다. 1982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신앙과 직제 위원회’ 총회에서 채택한 에큐메니칼 예배문을 기본으로 한국교회 실정에 맞도록 (고)백천기 목사가 엮은 책입니다.
2. 정용섭 목사님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신 후 현재 격리 중에 계십니다. 증상은 비교적 경미한 상태입니다. 후유증 없이 무탈하게 잘 넘기실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8월 둘째 주 예배 장소는 시청각실입니다. 다른 주일에는 아트컬리지5실을 대여하는데 목사님께서 오시는 주에는 성찬식이 있으므로 동선을 고려하여 넓은 공간을 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임민성 집사의 전시회가 오는 8월 12일~26일까지 갤러리 도울에서 열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난주일(7월31일) 헌금: 405,000원(주일 75,000원, 통장 33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8월 예배준비

날짜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 봉독	헌금/안내	예배준비
8월7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박수진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오미영 이유선
8월14일	4층 시청각실	정용섭	김기범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최선아 박정덕

* 2022년 7월 재정보고

2022년 7월 재정보고

수입			지출	
주일헌금	1주	285,000	강사비	1,200,000
	2주	140,000	대관비	126,720
	3주	80,000	주보비	40,000
	4주	170,000	구제비(채움누리학교)	50,000
	5주	75,000	선교비(뉴스앤조이, 새물결플러스)	100,000
통장헌금		1,690,000	간식비	117,800
선교헌금		100,000	교회집기 보관비	70,000
이자		1,636	교회집기 물품비	39,750
			회식비	208,000
수입계		2,541,636	지출계	1,952,270
* 수입 - 지출		(589,366)	전월이월액 :	17,799,708
			현 잔액 :	18,389,074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2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180장 (하나님이 나팔 소리) 3절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아홉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각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여러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일에 휘둘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야 할 길을 오롯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자비와 긍휼하심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의미 있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일상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쏟아낸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실족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형제이며 자매라는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근거해서, 그리고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예식서」 (영광송) ... 다 함께

하 - 늘 높 은 곳 - 에 는 하 나 님 께 영 - 광 영 광
 땅 위 에 는 그 - 의 백 성 들 - 에 게 평 화 - 평 화
 주 하 나 님 - 왕 - 의 왕 전 능 하 신 하 - 나 님 께
 감 사 찬 양 드 리 나 이 다 영 - 광 을 드 립 - 니 다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찬송 「베델의 노래」 180장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 다 함께

Lina Sandell

Oscar Ahnfelt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앞에 어려운 일 보네
 2.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시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3.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 해 보네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주님 앞 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 네 두려움 없 네
 주님 앞 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 네 위로 주시 네
 내 맘 속 에 믿음 잃지 않 고 말씀 속 에 위로 를 얻 네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I'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시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 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He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 to each day what He deems best,

사랑으로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내가 살아가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보니다

Lov-ing-ly it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 rest.

딤후 1:12

말씀 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상에서 들었던 여러 소리와 세상에서 보았던 문자와 이미지를 다 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는 이와 설교할 이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이사야 1:1, 10~20 … 박수진 집사

성서교독 시 50:1~8, 22~23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해가돋는 데서부터 해가지는 데에까지 하나님이 온세상을 불러모아 이르신다
 -**빼어나게 아름다운 거룩한산 시온위에 전능하신 우리주님 눈부시게 임하신다**
 삼키는불 앞세우고 돌개바람 거느리고 온천지가 요란하게 우리주님 임하신다
 -**주께서는 심판받을 백성들을 향하시어 하늘에서 땅끝까지 주님말씀 내리신다**
 성도들을 불러내어 내앞으로 데려오라 제사로써 나와함께 계약맺은 그백성을
 -**하늘들이 선포한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장이 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증언 들어보라 나는너희 주님되는 하나님이 아니더냐
 -**바친제물 흠이있다 허물하지 아니한다 올린제사 잘못됐다 책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잊은자야 맺은계약 생각하라 맺은계약 깨뜨렸듯 너희짓김 당하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제물 드리면서 옳은행위 하는사람 내가구원 하리로다**

둘째말씀 히브리서 11:1~3, 8~16 … 박수진 집사

*셋째말씀 누가복음 12:32~40 … 박수진 집사

*응답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92장 (아멘) … 다 함께

A - men, a - men, a - - - men.

설교 준비된 삶이란? … 이춘우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 다 함께